

## 주민 참여를 통한 도시 소공원 설계 및 조성

김연금\* · 성종상\*\* · 조석만\* · 이규목\*\*\*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 건축도시조경학부

### Community Participatory Small Park Design

Kim, Yun-Geum\* · Sung, Jong-Sang\*\* · Cho, Seok-Man\* · Lee, Kyu-Mok\*\*\*

\*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The University of Seoul

\*\*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School of Architecture, Urban Planning, and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community participatory small-park design. It proposes that environmental planning and design can be understood as a communicative action that aims to achieve consensus among stakeholders through communication with the local residents. By studying the communicative action theory and communicative planning theory, three strategies were set for practicing small-park design as a communicative action: (1) stakeholders should know what data and actions are needed; (2) citizens should have access to the data and participate in the process; (3) the community's concerns should be consulted and their opinions heard.

In applying the three strategies to the small-park design, a council composed of experts, community members, and NGO's was established. All processes were then executed after careful deliberation. From interviews, the town-touring program and surveys, the design of the site was determined among the stakeholders. The site was subsequently designed based on the needs of the community and revised according to their suggestions. Finally, the small park was constructed. Even though the researchers experienced many limitations because the site is very small,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can be outlined as follows:

(1) the need to construct the park was suggested by the community rather than by the administration; (2) experts, members of the community, and NGO's constituted the council; (3) the design process involved

deliberation among the members of council rather than a method previously established by experts; (4) the administration supported rather than led the entire process; (5) citizens discussed and reached a consensus by themselves.

*Key words: Participatory Design, Communicative Action Theory, Communicative Planning Theory.*

## I. 서론

본 연구에서는 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도심 속의 자투리 공간을 소공원으로 조성한 사례를 다루었다. 본 연구의 대상지가 되는 가회동의 자투리 공간은 1980년대에 좁도둑 및 불량배로부터 동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방법초소를 건립하였던 곳이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방법체계의 변화로 방법초소 기능이 상실되어 모래함 적재 및 쓰레기 적치장 등으로 방치되면서 주변 경관을 해치고 위생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이에 2002년 6월 지역의 통장을 비롯한 몇몇 주민과 시민단체인 '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민연대'(이하 도시연대)는 지역민들에게 대상지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전문가 집단으로 본 연구자들이 참여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대상지를 소공원으로 조성하였다.

지방에 자치권을 주고 그러한 자치권이 주민에 의해 행사되고 또 통제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정책 수립과 실천에 있어서 주민 참여가 중요시되고 있다. 환경 계획과 설계 분야에서도 주민 참여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고 관심을 넘어선 시도들도 간간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또는 시안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 및 공식적 공청회 등의 기존의 주민 참여 방식은 주민들의 이익 제기나 반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요식행위라는 문제 지적들이 있다(김찬호, 2002; 박현찬과 유나경, 2001).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형식적인 기존의 주민 참여 방법의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공원 계획 및 설치 행위를 주민, 전문가, 행정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자신들의 의견을 서로 토론하면서 상호 주관

적 합의에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통행위로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하버마스의 소통행위 이론과 도시계획 분야에서의 소통적 계획 이론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도시 소공원 설계 및 조성 실천을 위한 전략들을 수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도시 내 자투리 공간을 설계 및 조성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략들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설계 및 조성 과정은 면담, 마을 탐방 프로그램 진행, 설문조사 등을 통한 관련자들의 의견 공유 단계, 설계안 작성 및 조성 단계로 이루어진다.

## II. 이론적 배경

### 1. 소통적 행위로서의 환경 계획 및 설계

배버가 전통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이행하는 역사적 과정을 합리화라는 개념으로 파악한 것처럼 근대에 들어서면서 건조 환경(built environment)도 합리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문적인 기능들로 분화되고 점점 추상화 되어간다. Harbraken(2000)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도처에 있고, 안정적이며, 건축적 혁신의 배경이 되어 온 일상의 건조 환경은 지금에 이르러 전문가에 의해 재 고안되는 중이며, 부분 부분이 시시각각 그렇게 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우리들의 구체적 일상 속에서 확인되는 경험의 세세한 흐름은 전문가들의 합리적 사고와 그들의 추상적 개념들로만 다루어지기에는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며(김영민, 1997), 시민들의 입장에서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추상적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진다. 따라서 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필요 사이에, 그리고 행정과 주민, 전문가와 주민의 사고방식 사이에 모순이 생겨나고 충돌하는 부분이 들

출된다(김찬호, 2002). 즉, 도구적 행위와 전략적 행위가 중심이 되어 있는 시스템의 원리가 생활 세계까지 침투, 축소, 와해시킨 결과가 건조 환경의 측면에서도 나타난 것이다. Habermas(1995)는 이를 생활 세계의 식민화라고 부른다. 이에 대한 극복 방안을 Habermas에서 찾아본다면 환경 계획과 설계를 상호 주관성을 인정하는 소통적 행위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sup>1)</sup>. 도구적, 전략적 행위에서 행위자는 효율성의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행동을 선택하고 수단을 측량하지만 의사소통적 행위에서 행위자들은 상호 이해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

그리고 이렇게 환경 계획 및 설계를 소통적 행위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형성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은 정체성을 지닌 어떤 사회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생산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공식적인 제도뿐만 아니라 이를 유지시켜 주는 규범과 비공식 기능까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관계를 말한다. 사회적 자본은 발전현상의 가치체계인 경제정의, 사회정의, 그리고 환경정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금융자본, 물리적 자본, 인간자본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소진광, 2002). 미국 필라델피아 북부 도심에 있는 비영리단체 '예술과 자애의 마을(Village of Arts and Humanities)'과 영국의 '그라운드워크(Groundwork)' 같은 비영리 단체들은 경관이나 공원 같은 외부 공간 조성을 지역 활성화 사업의 시발로 삼는다. 계획 및 설계를 위한 지속적인 의사소통 속에서 주민들 간의 상호관계가 이루어지고 눈에 보이는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들은 자신감을 갖게 되어 지역의 다른 공동 사업을 진행할 여지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주민 참여를 통한 외부 환경 개선을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축적하는 계기로 여기는 것이다.

## 2. 소통적 행위로서 환경 계획 및 설계에 대한 논의들

여러 환경 계획 및 설계 분야 중 도시계획 이론에서는 일찍부터 하버마스의 소통행위 이론을 빌려와 '소통적 계획 이론(communicative planning theory)'을 발전시켰다. 소통적 계획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Forester

(1988)는 계획을 소통행위로 이해함으로써 계획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억압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진실한 대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잘못된 기대들을 바로 잡을 수 있고, 냉소주의를 상쇄시킬 수 있으며, 탐구심을 키울 수 있고, 정치적 책임성, 참여 활동을 확장시킬 수 있다고 본다. 더불어 Forester는 Habermas가 제시한 이상적 대화 상황이 되기 위한 네 가지 타당성 요구들 - 화자가 발언한 것의 이해 가능성, 진술의 진리성, 언어 행위의 정당성, 표현의 진실성-을 충족키 위한 11개의 전략들을 제시한다<sup>2)</sup>.

Sager(1994)는 기존 도시 계획 이론인 점진주의와 소통적 계획 이론의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점진주의는 Charles Lindbloom이 처음 제시한 것으로 계획을 덜 과학적인 것으로 보고 직관과 경험의 혼합 이상의 것으로 보며 계획 과정에 계획 참여자간의 대화를 중요시 한다(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0). 그러나 소통적 계획과 다른 점은 대화를 도구적 이성을 전제하고 계획을 완성시키는 과정상의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그는 점진주의를 수정한 소통적 계획을 제시한다(Sager, 1994). Innes(1998)는 소통적 계획에서의 정보에 대해서 논하였다. 계획가는 더 이상 도구 이성적인 의사 결정자들을 도와주는 객관적 정보 제공자여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의 개념과 역할에 대해서 논하고 세 가지 결론을 이끌어 낸다. 세 가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통적 실천에서 정보는 증거로 사용되어지기 보다는 이해의 과정 속에서 첨가되어야 한다. 둘째, 정보가 생산되고 동의 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므로 주요 참여자들이 토론하고 정보에 대한 의미들을 공유하는 사회적 과정은 필요하다. 셋째, 객관적 정보 이상의 여러 형태의 정보가 있어야 한다(Innes, 1998).

소통적 조경 계획에 대한 논의는 영국의 조경가 Ian Thompson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소위 SAD로 불리는 Survey-Analysis-Design에 근거하는 정통적 방법은 창의적이고, 직관적인 요소들을 수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안으로 '소통적 조경계획'을 제시한다(Thompson, 1999). 그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토론은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설계가들은 자신의 논쟁적 가치 기준들을 이

해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다른 사람들의 가치기준들도 중요시 여기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한다. 비록 논의의 출발지점은 다르지만 프랑스의 피에르 도나디유 또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의 시간은 중요하며 조경가는 설계도를 그리고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데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경관을 해석하고 문제점을 제시해주는 데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다(박정욱, 2000).

이러한 소통적 도시 계획 및 조경 계획에서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전문가 그룹의 독단적 작업을 탈피하여 다양한 관련자들을 계획 과정에 참여시키고, 도구적 이성만을 사용하는 선형적 단계(조사-대안작성-대안평가-대안 선정) 같이 정형화된 계획 틀을 벗어나 비판적 자세를 견지하면서 상호 토론을 통해 계획을 진행시키고, 정보 수집에 있어서 정량적인 정보 외의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원활한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찾아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들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 3. 설계 및 조성 진행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조경 계획 및 설계를 소통적 행위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의 실천 전략을 세웠다. '첫 번째, 조사-분석-디자인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탈피하여 관련자들이 함께 모여 필요한 정보들과 활동들은 어떠한 것인지를 수시로 토론하여 결정하면서 진행한다. 두 번째, 주민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관련 정보들과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주민들에게 공개한다. 세 번째,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관심을 촉발하고 그들의 이해에 귀 기울인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속적이고 정규적인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관련자들의 협의체가 필요하였다. 이는 설계 및 시공 자체 과정뿐만 아니라 향후 관리를 주민 스스로가 하고 지역 내 다른 외부 환경 개선 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 즉 사회적 자본 형성 계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본 대상지의 경우 주민인터뷰 및 면담 내용 등을 검토해 본 결과 계 모임 같은 지역 내 주민들 간의 자치 조직이 없고 반사회 같은 공식적인 모임도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한 채 주민들의 접촉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단시일 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은 무리라고 판단되어, 본 연구자들과 시민단체인 도시연대와 주민의 대표 격인 통장과의 지속적인 협력 속에서 주요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시민단체인 도시연대는 전문가집단인 연구자들과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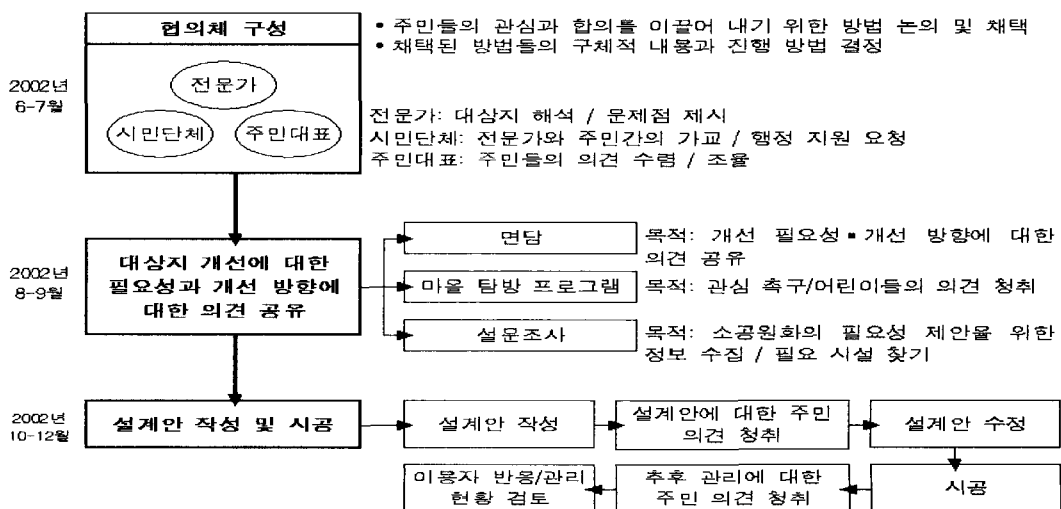


그림 1. 설계 및 조성 진행 과정

민들 간의 가교 역할을 하였고 시유지인 대상지 개선에 대한 행정의 동의를 이끌어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통장은 '80년대 중반부터 2002년 현재까지 통장 임무를 맡고 있을 만큼 주민들과의 관계망이 넓고 신망이 높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데 적당하다고 여겨졌다. 주거지내 소공원의 경우 지역 내 체류기간이 긴 주부들이 주 이용자가 되나 여성들은 공식적인 간담회 등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이와 같은 주민에 의한 비공식적 접촉이 주민들의 보다 다양한 의견을 듣는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Sanoff, 2000). 의견 수렴 및 조율 대상 주민들의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 연구자들과 도시연대는 통장을 비롯한 협의체 내 주민들에게 통장 관할 지역 내 주민들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주민들과 만날 것을 요구하기는 했으나 이들의 인적 관계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협의체 논의 속에서, 대상지 개선에 대한 필요성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주민들과의 의견 공유 방법으로서 먼저 면담 방법을 채택하여 주민들의 반응을 살폈고 이에 따라서 설문조사, 어린이들의 마을 탐방 등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방법들의 내용과 진행 방법 또한 협의체 논의 속에서 이루어졌다. 주민들과의 합의된 개선 방향을 바탕으로 설계 및 시공을 진행하였고 통장 및 적극적인 주민들을 통한 개별적 접촉, 대상지에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진행되어지는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렸다.

#### 4. 대상지의 이해

대상지는 행정동 상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20번지의 진입로 입구로서 골목길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1960년대까지 공동우물이 있던 곳이다. 총 면적은 7.2㎡로 대상지내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건립하였던 방법초소와 모래함 있으며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었고 한옥의 일반 주택과 상가와 면해 있다.

대상지 주변 일대는 법정동으로는 원서동으로 조선 시대에는 원골로 불리었으며 개천인 물길을 따라 형성된 곳이다. 창경궁이 인접해 있는 만큼 조선시대에는 궁중 나인들과 내시 등이 주로 살았으며, 문화재관리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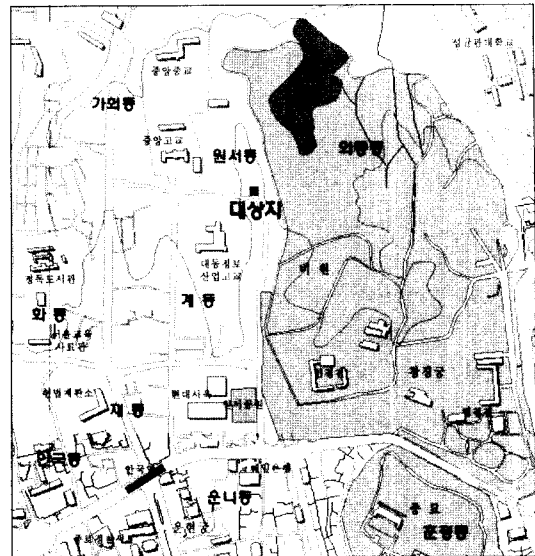


그림 2. 대상지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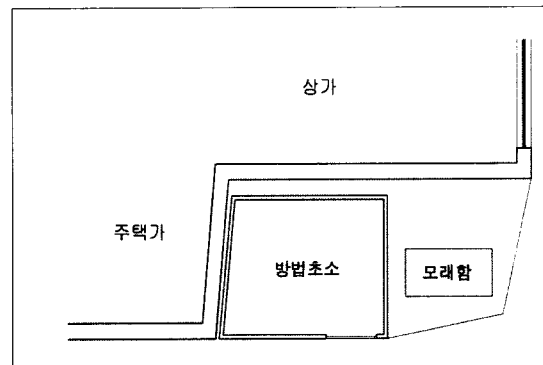


그림 3. 대상지 평면도



그림 4. 대상지 현황 1 - 한옥들로 이루어진 골목 입구여 있음.



그림 5. 대상지 현황 2 - 주민들이 모금하여 설립하였던 방범 초소가 보임.

(현 문화재청) 소유의 국유지였으나 한국전쟁 때 난민들이 무단 점유하면서 불량주택과 소규모 한옥이 들어서게 되었다. 1992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지정되면서부터 4-5층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건설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원서동 20번지 일대는 약 5m폭원의 골목길에 오래된 한옥 20여 채가 마주 보고 있다.

대상지가 위치한 북촌에서는 2001년부터 '서울시 북촌 가꾸기'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업은 북촌 한옥을 보존하고 동네를 정비하여 운치 있는 도심주거지를 되살리기 위한 한옥 수리비용 지원, 세금감면 혜택, 생활환경 정비, 일부 한옥 매입 등 공공 투자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한옥 등록제를 근간으로 시작되고 있는 북촌 가꾸기는 마을을 지키고 되살리는 일을 주민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주민 참여 마을 만들기'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북촌은 한옥 보존과 개발이라는 극단적인 갈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보다는 행정이 주도하고 있다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2002). 이에 주민참여를 통한 대상지의 소공원화는 주민주도형 북촌 가꾸기의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 대상지 선정의 또 다른 의의를 갖는다.

## 5. 설계 및 조성 진행 과정

### 1) 대상지 개선에 대한 필요성과 개선 방향에 대한

### 의견 공유

#### (1) 개별 면담을 통한 의견 공유

대상지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협의체 내 주민들을 통해 지역 주민 20여명을 대상으로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대상지가 매우 지저분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라고는 느끼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는 상태였다. 이는 대상지를 비롯한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 부족과 이제까지 주변 환경에 대한 문제점이나 의견들을 제시할 창구가 없었던 탓에 적극적인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여겨졌다.

주민 면담을 통해서 대상지를 비롯한 외부 환경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과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졌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먼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마을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협의체 내 주민들을 통한 2차 면담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대상지 개선에 반영될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sup>3)</sup>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묻는 개별적 접촉을 계속 진행하였다. 주민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지었던 방범 초소 건물을 재활용하기를 바랐고 대상지 인접 건물 거주자들이 공원 조성으로 야기될 소음 등의 문제가 없다면 소공원으로 개선하는데 별 다른 의견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몇몇 주민들은 깨끗이 청소만 하면 됐지 비용을 들여 소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소공원으로 조성 후 다시 쓰레기 적치장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협의체는 가능한 한 적은 비용을 사용할 것과 소공원으로 조성하면 경관적으로 향상되고 사람들의 이용과 관심이 많이 쏠려 다시 쓰레기 적치장으로 전락할 위험성은 적다는 것 그리고 가능한 한 관리가 용이하게 설계할 것을 홍보했다.

(2) 마을 탐방 프로그램을 통한 주민들의 관심 촉발 집단화되기 힘든 주민의 경우와 달리 어린이들은 집단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용이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부모들의 관심을 촉발해낼 수 있다.

2002년 9월 2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대상지 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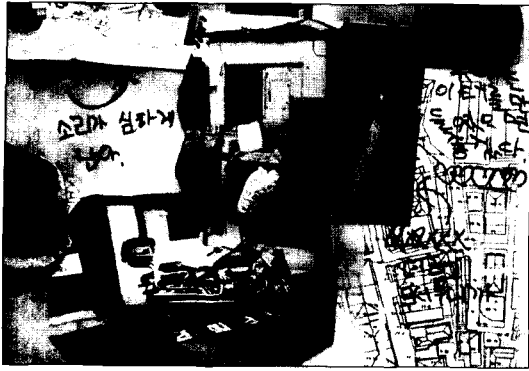


그림 6.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대상지의 개선 방안 - 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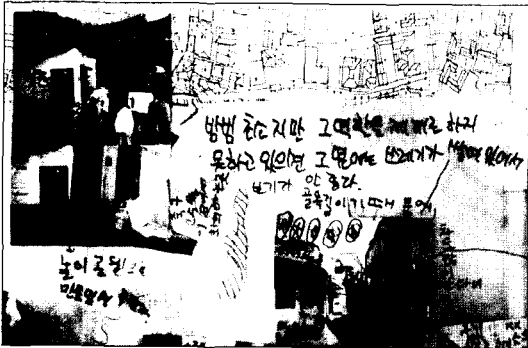


그림 7.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대상지의 개선 방안 - 2조

에 살고 있는 재동초등학교 어린이 15명에게 1회용 카메라를 주고 마을에서 좋은 곳과 나쁜 곳, 주로 노는 장소,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장소, 지저분한 장소, 놀이공간으로 정비가 필요한 장소, 위험한 장소 등 마을에 대한 사진과 대상지에 대한 사진을 찍도록 하였다. 그리고 일주일 후 가회동 수녀원에서 어린이들을 두 조로 나누어 진행자의 질문에 따라 대형 지도에 사진을 붙이고 글씨를 써 넣으면서 마을과 대상지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리하도록 하였다. 어린이들은 대상지가 지저분하므로 유아 놀이터로 만들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림 6과 7은 우리 마을에 관해 어린이들이 찍은 사진들 중 대상지와 관련된 사진과 개선 방안에 관한 1, 2조의 것이다.

(3) 설문조사를 통한 소공원화 필요성과 필요 시설에 대한 의견 공유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소공원으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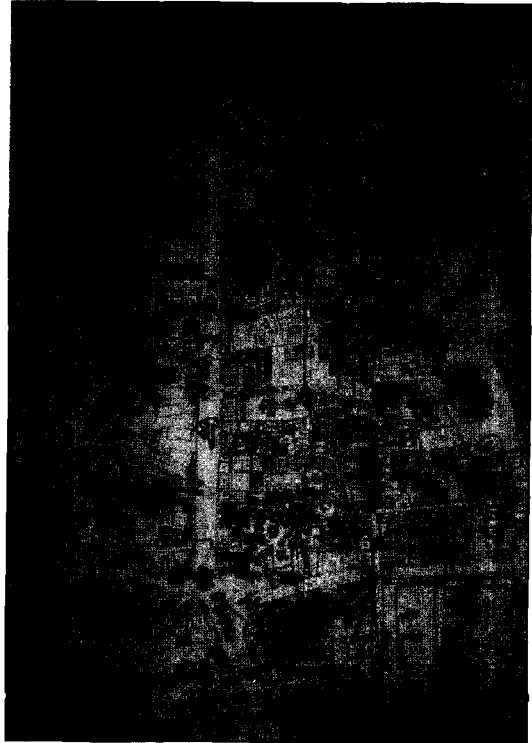


그림 8. 어린이들의 우리 동네 지도그리기 - 1조의 그림



그림 9. 어린이들의 우리 동네 지도그리기 - 2조의 그림

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찾고자 하였다. 소공원 조성이 필요하나 하지 않느냐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보다는 주민들이 느끼는 지역 외부 공간에 대한 문제점과 요구 사항들 속에서 간접적으로 소공원화의 필요성을 찾고자 하였으며 이것이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있어 더욱 효과적이라 여겼다. 그리고 설문 조사를 통해서 추후 대상지에 설치될 시설물의 종류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설문조사는 2002년 9월 20일, 21일 이틀간 이루어졌고 피조사자는 남자 18명, 여자 32명이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은 대상지를 비롯한 마을이 지저분하다고 여기고 있다는 것과 지역 내 작은 휴식공간이나 담소공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협의체 구성원들은 설문 조사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렸고, 또한 설문 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의 대안으로 소공원 조성이 필요함을 주민들에게 설득시키는 노력을 하였다.

2) 설계안 작성 및 시공

대상지가 매우 지저분하고 마을 내 휴식공간과 담소공간이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기초해 설계안을 작성하였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과 기술적 문제들을 검토하여 설계안을 수정하였다. 최종 설계안에 따라 시공을 하였고 시공 후 의견 수렴용 안내판을 활용한

의견 수렴, 면담, 관찰 등을 통하여 이용자들의 반응 및 관리 현황을 검토하였다.

도시연대는 가회동 동장을 만나 시유지인 대상지에 소공원 조성이 가능한지를 타진하였다. 동장은 서울시 북촌 가꾸기 사업에서 주민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인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던 터라 적극적으로 도와줌으로써 시유지 사용과 관련된 행정적인 처리를 간소화할 수 있었다.

(1) 설계안 작성

먼저, 대상지에 대한 두 가지의 설계 대안을 작성하였다. 대안 1에서는 방법초소의 앞쪽부분을 완전 개방하여 공간의 개방감을 주는 것, 대안 2에서는 앞쪽을 일부 막아 나무 식재를 함으로써 다소 시각적 차단효과를 주는 것으로 하였다. 대상지 내 방법초소 건물은 주민들의 모금으로 지었다는 것에 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 부분적으로 철거하고 남겨진 부분에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 재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옆 건물과의 인접 벽에는 덩굴 식물을 심어 벽을 가릴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2) 설계 안의 내용 전달과 주민들의 의견 청취

이 과정에서 설계가는 자신이 제시한 안을 주민들이 제대로 이해하여 자신들의 생활에 끼칠 영향들을 예측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들은 설계가들이 제시하는 도면 등에 익숙하지 않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평면도와 입면도 외에 현황 사진에 다 변화된 모습을 합성한 시뮬레이션 이미지 등으로 구

표 1. 외부 환경 만족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문항	답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나무가 부족하다	8	14	20	34	24
동네가 지저분하다	6	22	44	22	6
휴게공간이 부족	16	44	32	6	2
담소공간이 필요	44	38	16	2	0

표 2. 목적별 외부 공간 이용 빈도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문항	답변(%)			
	전혀 없다	한달에 한번	한달에 3, 4번	일주일에 2번 이상
길에서 이웃들과 담소를 나눈다	38	16	18	28
길가에서 쉰다	56	18	4	22



사진 10. 설계 대안 1





그림 11. 설계 대안 2

성된 설명 안내판을 주민의 리더 격인 통장에게 전달하고 통장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대상지가 작고 설계 내용이 간단하여 주민들이 설계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으나 남겨지는 벽체 모양이나 벽화 그림을 확정적인 것으로 이해해 추후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렸다. 1차 설계 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중 주요한 것은 서울시의 북촌지역 사업과 연관되어 2~3년 뒤면 인접 건물의 매입이 예상되므로 최소한의 비용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노인들을 위한 휴식 공간의 필요, 마을버스 정류장이 가까우므로 마을버스 정류장으로서의 역할 부여 등이다. 이외 주민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설계안의 내용대로 가면 비용이 얼마나 들 수 있는지, 벽화는 이왕이면 원서동이라는 이미지와 맞출 필요가 있다. 나무가 심겨질 경우 잘 자랄 수 있는 것인지? 모래함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분위기가 밝았으면 한다.”

### (3) 설계안 수정

방법 축소 건물을 재활용하려 했으나 구조적으로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 건물은 모두 허물기로 하고 벽을 허물고 드러나는 벽에는 나무 펜스를 쳐서 시각적으로 차단하도록 하였다.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시각적으로 개방되는 대안 1을 수용하여 버스 정류장으로 사용하기에 용이하도록 하였다. 바닥과 화단은 모두 적벽돌을 사용함으로써 인접 건물 외벽과 통일감을 갖도록 하였고 의자와 펜스는 나무로 작성하여 주변에 이질적이지 않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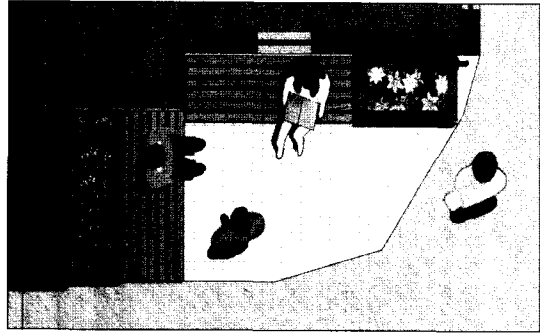


그림 12. 최종 설계안의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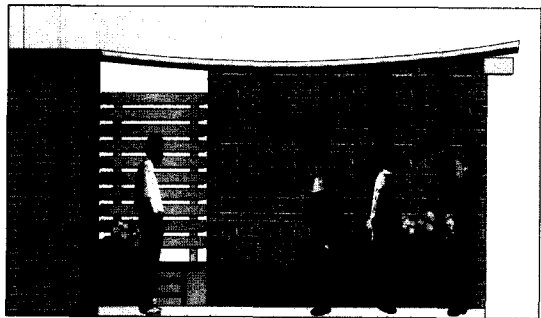


그림 13. 최종 설계안의 입면

### (4) 시공과 시공 기념 이벤트 개최

최종 설계안을 입구부에 걸어 두고 11월 10일부터 총 5일 동안 공사를 진행하였다. 공사로 인한 불편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주민들의 관심을 촉구하여 앞으로의 관리 방안에 대한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사 첫날에는 통장의 주도로 떡과 술을 주민들에게 돌렸고 공사 마지막 날은 완공 기념자리를 만들었다. 완공 기념자리에는 가회동 동장, 새마을회 회장, 노인정 회장, 통장, 가회동 통장 모임 회장 등 지역 인사와 대상지 주변 한옥에 공방을 갖고 있는 문화인들-윤병훈 장인(오죽공방), 권무석 공장(활), 고완기(전 서울시 문화과 재직)-과 일반 주민들이 모였고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원의 이름과 추후 관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공원 이름은 '빨래 골 쉼터'로 하자라는 것이 우세하였다. 추후 관리에 대해서는 차량의 점유가 걱정되므로 이동식 원형 화분을 놓아 차량의 진입을 막자는 의견, 돌과 같은 간이 이동식 블라드를 설치하여 벤치겸용으로 사용하자는 의견 등이 있었다. 가회동 동장은 즉석에서 원형 화분을 기증할 것을 약속했고 가로등을 설치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처리할 것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이후 공간의 변형 시 설계자와 상의할 것과 청소, 쓰레기 처리 등의 문제들을 주민들이 스스로 협조하며 할 것을 약속했고 상업적인 이용이 불가함을 알리는 안내문을 설치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5) 공사 후 이용자들의 반응 및 관리 현황 검토

공사 후 일주일간 공원 이름 공모와 봄에 심을 꽃을 선정하기 위한 의견 수렴용 안내판을 설치하였다. 주민들은 공원 이름에 대해서는 “빨래 골 쉼터, 한 평 반 쉼터, 빨래터의 편안한 쉼터, 연인 쉼터, 버스 정류장 쉼터, 화목 쉼터, 자연으로 되살아나는 쉼터, 원서동 쉼터, 푸르른 쉼터, 작은 공원” 등의 의견들을 기재하였고 봄에 심었으면 하는 꽃에 대해서는 “해바라기, 진달래, 백합, 목련, 작은 소나무, 진달래나 회양목 하세요! 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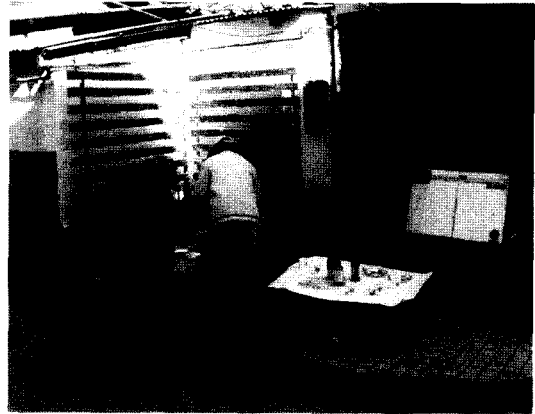


그림 16. 공사 마지막 날 주민 잔치 준비



그림 14. 공사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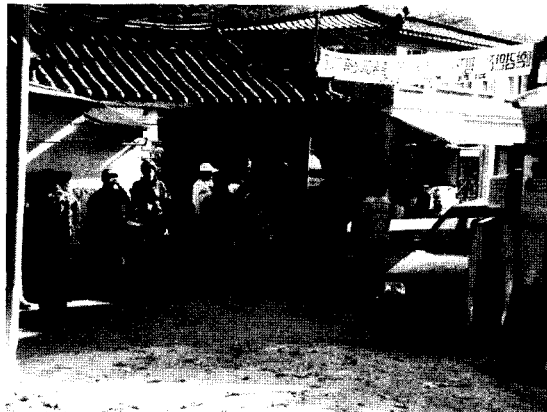


그림 17. 공사 마지막 날 공원 관리에 대한 주민들 간의 협의 장면



그림 15. 공사 시작 날 주민들의 음식 돌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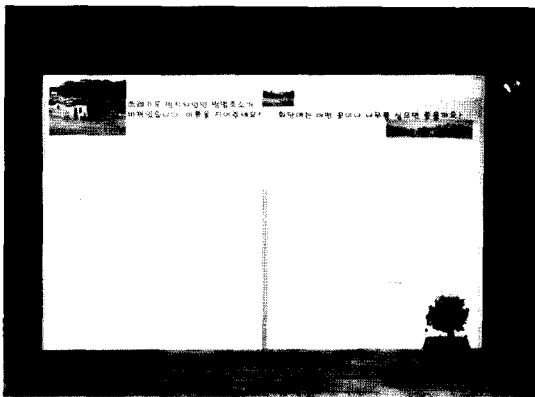


그림 18. 공원 이름 및 봄에 심을 꽃 선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용 안내판

보기 좋음.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한 그루 사과나 무를 심겠다. 아카시아, 무궁화, 개나리, 장미” 같은 의

견을 기재하였다.

공사 후 2003년 3월 현재까지 이용기간이 겨울이라 적극적인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공사 후 벤치를 바닥에 고정시킬 수 있는 장치물을 달기 위해 벤치를 잠시 다른 곳으로 옮겼을 때 도시연대 사무실과 통장 집으로 의사 분실을 신고하는 전화가 있었고 2002년 12월 말경 나무 펜스가 부분적으로 훼손된 사건에서는 주민들 스스로 이를 재보수하는 열성을 보여 대상지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소유 의식을 느끼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 III. 결론

본 연구에서는 방법 초소의 기능 상실로 방치되어 쓰레기 적치장으로 쓰이고 있는 도심 내 자투리 공간을 주민참여를 통해 소공원화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부분적 주민 참여는 형식적인 참여에 머물 소지가 크다고 보아 대안으로 소통적 행위로서의 환경 계획 및 설계를 제시하였다. 이에 하버마스의 소통적 행위와 환경 계획 및 설계에 있어서의 관련 이론들을 검토하여 '1. 관련자들이 함께 모여 필요한 정보들과 활동들은 어떠한 것인지를 수시로 토론하여 결정하면서 진행, 2. 주민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관련 정보들과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주민들에게 공개, 3.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관심을 촉발하고 이해 사항 청취'라는 세 가지 전략들을 도출하여 현장에서 실천하였다.

위와 같은 전략들에 따라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이 함께 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그 속에서의 논의를 통해 전 과정을 진행하였다. 면담, 어린이들의 마을 탐방, 설문 조사 등을 통해서 대상지 개선에 대한 필요성과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고 대상지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종합하여 설계안을 작성하였다. 주민들의 의견과 기술적 문제들을 검토하여 수정된 설계안에 따라 시공이 이루어졌고 시공 후 의견 수렴용 안내판을 통한 의견 수렴, 면담, 관찰 등을 통하여 이용자들의 반응 및 관리 현황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가 작아 이용 범위가 넓지 않고 주민들의 생활에 끼치는 영향도 크지 않아 주민들의 관심이 소극적이었다. 이에 협의체에 다양한 배경의 주

민들을 포함시키지 못했고 환경 계획 및 설계를 소통행위로 이해하고 실천하는데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상황들과 문제들을 살피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즉, 대상지 소공원화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기는 하지만 전체 진행에 영향을 줄 만큼 적극적이지 않았고 설계 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전문가와 일반 주민, 일반 주민들 간의 이견들이 많지 않았다. 이외에, 비록 협의체 내 논의 속에서 대략적인 파악은 가능했지만, 몇몇의 주민들을 통해 주민들 간의 토론을 진행시켰기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의 내용과 합의의 과정들을 연구자가 직접 세세하게 검토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지 선정과 소공원화에 대한 필요성의 제기가 행정의 관료적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에 의한 것이며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이를 도와 실현하였다는 것, 전문가, 지역 주민들, 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미리 절차를 정하고 그에 따라 진행한 것이 아니라 협의체 속에서 매 순간 순간 보이는 현상들을 진단하고 논의하면서 전체적인 과정을 진행하였다는 것, 행정의 역할을 '주도'에서 '지원'으로 한정했다는 것,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주민들 스스로가 서로 토론하면서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 등에서 환경 계획 및 설계를 소통적 행위로 이해하고 실천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 1. 여기에서 '도구적 행위'란 과학적 내지 기술적 규칙성에 따라 자연적 대상을 조작하는 행위로, '전략적 행위'란 자기의 이익과 관련된 목표 달성을 위해 타자의 의사에 영향을 끼쳐, 그의 행위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행위로 '의사소통 행위'란 사회의 목표, 규범, 도덕, 미적 가치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쟁점의 타당성 요구를 대화에 의해 조정하고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행위로 각각 정의된다 (전경갑, 1999).

주 2.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개발하라. 2. 모든 참여자들의 관심과 이해에 귀 기울여라. 3. 덜 조직화된 이해들은 그들에게 영향을 줄을 알아라. 4. 주민들에게 계획 과정과 "게임의 룰"에 대해서 교육시켜라. 5. 시민들에게 기술적이고 정치적인 정보를 제공하라. 6. 주민, 비전문가 조직들이 공공 계획 정보, 법규, 계획들 그리고 관련된 회의에 대한 통보 그리고 행정가, 전문가들과의 협의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노력하여라. 7. 제안되어진 프로젝트와 디자인 안들에 대한 정보를 커뮤니티에 기반한 집단들이

- 인쇄하도록 독려하여라. 8. 고립되어진 기술적 작업에서 나온 과정을 기대하기보다는 집단들과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기술들을 키워라. 9. 프로젝트 검토에 대한 효과적 참여의 중요성을 커뮤니티 이해 당사자들에게 강조하라. 10. 프로젝트 검토들과 조사들이 독립적일 수 있도록 해라. 11. 설계 결정을 결정짓는 외부의 정치적-경제적 압력을 예상하라 (Forester, 1988).
- 주 3. 사람들은 변화가 확실히 일어날 때 함께 한다. 그리고 참여는 참여자들이 직접적으로 성취감을 얻고, 능동적일 때 제 역할을 한다(Sanoff, 2000).

### 인용문헌

1.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2002) 마을만들기 2000+2-마을만들기의 지속 가능성. 도시연대 보고서.
2. 김익중 외 공역(2000) 일상의 건축. N. J. Harbraken The Structure of Ordinary. 서울 : 기문당.
3. 김영민(1997) 탈식민성과 우리 인문학의 글쓰기. 서울 : 민음사.
4. 김찬호(2002) 도시는 미디어다. 서울 : 책세상.
5.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2000) 도시계획론. 서울 : 보성각.
6. 박정옥(2000) 우리시대의 설계언어 : 프랑스(15) -피에르 도나디유, 경관의 창조적인 보전을 위하여. 환경과 조경 통권 제 151호, pp. 55-65.
7. 박현찬, 유나경(2001)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시범가로 시행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보고서.
8. 서규환 외 공역(1995) 소통행위 이론 1. Habermas, Jürgen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서울 : 의암출판.
9. 소진광(2002)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의 연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02년 21세기 국가발전과 국토 환경에 대한 세미나 자료집, pp. 29-47.
10. 전경갑(1999) 현대와 탈현대의 사회사상. 서울 : 한길사.
11. Forester, John(1988) Critical Theory and Planning Practice. In John Forester eds., Critical Theory and Public Life, Massachusetts: The MIT Press, pp. 203-227.
12. Innes, Judith(1998) Knowledge and Public Policy.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64(1), pp. 52-63.
13. Sager, Tore(1994) Communicative Planning theory. Brookfield USA : Avebury.
14. Sanoff, Henry(2000) Community participation methods in design and planning. New York : John Wiley&Sons, Inc.
15. Thompson, Ian H.(1999) Ecology, community and delight sources of values in landscape architecture. London : E & FN Spon.

---

원 고 접 수 : 2003년 2월 28일  
 최종수정본 접수 : 2003년 4월 7일  
 3인의명 심사필